

인디아 브리핑

실적 장세 속 업종별 차별화

Summary

지난 2주(2026년 7월 20~31일) 인도 증시는 FY1Q27(2026년 4~6월)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기업에는 매수세가 집중된 반면, 실적과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기업들은 조정을 받으며 종목별 주가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며 대형주 중심의 투자심리를 지지했지만,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국제유가 상승은 시장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IT 서비스와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다. IT 서비스 업종은 주요 기업들의 양호한 FY1Q27 실적과 함께 글로벌 AI·반도체 관련주에 집중됐던 투자심리가 완화되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IT 서비스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한 영향으로 TCS와 인포시스 등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Nifty IT 서비스 지수는 7월 한 달간 약 17% 상승하며 최근 6년 내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업종 역시 SUV 판매 호조와 마힌드라(M&M) 등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시장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금융주는 은행과 NBFC 간 주가 흐름이 엇갈렸다. 바자즈파이낸스 등 일부 NBFC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실적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은행주는 순이자마진 둔화와 수익성 우려가 부각되며 혼조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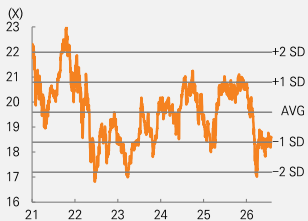
향후 국제유가가 하반기에도 배럴당 90달러 이상에서 유지될 경우, Nifty50의 FY27 EPS 추정치는 4~5% 추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CY2H26 EPS 성장률은 기존 시장 기대치였던 전년 대비 10% 초반에서 높은 한 자릿수 수준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둔화 압력이 확대될 경우 모디 정부는 내수 소비 부양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실적 둔화 우려를 완화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 흐름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인도 비중 확대 전략을 지속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업 실적 추정치 조정의 영향으로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어적 성격의 소비재 업종을 포함한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업종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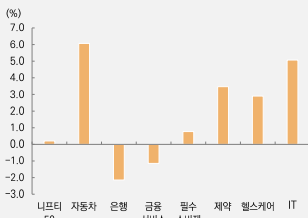
Nifty 50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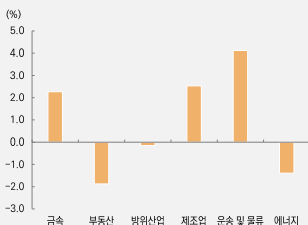
Nifty 50 P/E 밴드 차트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I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sasset.com

표 1. 인도 주요 지수 수익률

지수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Nifty50	2.6	0.2	2.2	1.6	-3.7	-1.6	23.4	54.7
Nifty Next 50	2.6	2.5	2.8	5.8	8.6	9.8	62.6	87.1
Nifty Midcap 50	2.2	1.0	2.9	7.2	8.5	11.7	67.3	136.4
Nifty Midcap 100	2.1	0.8	1.8	5.2	7.7	9.6	66.8	126.2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뉴스 및 이벤트 분석

인디안 호텔 컴퍼니(IH IN, 매수): 순조로운 FY27년 출발

동사의 FY1Q27 매출은 234억 루피(+14.6% YoY), EBITDA는 67억 루피(+16.8% YoY)를 기록하며,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EBITDA 모두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였다. 해외여행 수요 일부가 국내여행으로 전환된 가운데, 지난해 주요 호텔 브랜드 리노베이션 완료에 따른 객실 운영 효율 개선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EBITDA 이익률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전년 대비 0.5%p 개선된 28.7%를 기록했다.

경영진은 7월에도 객실당 평균 매출이 1분기를 상회하는 등 견조한 영업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FY27년에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전망했으며, 다양한 호텔 브랜드 포트폴리오, 신규 M&A 및 신규 호텔의 실적 기여, 견조한 국내 여행 수요가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도 호텔 산업의 구조적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동사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이터널(ETERNAL IN, 매수): 성장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이터널의 FY1Q27 EBITDA는 경쟁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쿼커머스와 음식 배달 부문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59.4억 루피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하였다. 플립카트, 아마존 인디아, 릴라이언스 등의 공격적인 투자로 경쟁 심화 우려가 지속되었지만, 쿼커머스 부문은 10.2억 루피의 EBITDA 흑자를 기록하며 전 분기에 이어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갔다.

쿼커머스 부문은 순주문금액(NOV, +86.2% YoY)과 월간 거래 고객(MTU, +88.2% YoY)의 고성장에 1P 모델 전환 효과가 더해지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2.7% 증가했다. 경영진은 향후 3년간 쿼커머스 매출이 연평균 6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장기 조정 EBITDA 마진 가이드선도 6%로 상향했다. 음식 배달 부문 역시 월간 거래 고객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1%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최근 1년간 시장은 쿼커머스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둔화를 우려해왔으나, 쿼커머스 EBITDA 이익률은 최근 5개 분기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경영진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자신감을 제시했다. 중장기 성장 잠재력과 시장 내 경쟁 우위,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개선을 감안해 동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타타 컨슈머 프로덕트(TATACONS IN, 매수): 견고한 프리미엄 제품군 성장

동사의 FY1Q27 매출과 EBITDA는 각각 535억 루피(+12.0% YoY), 73억 루피(+20.3% YoY)를 기록했으며, EBITDA는 시장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였다. 인도 음료 부문은 차와 커피 판매량이 전년 대비 2% 증가했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4% 감소하였다. 반면 인도 식품 부문은 소금 사업의 견조한 성장과 타타 삼판 등 주요 브랜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22.4% 성장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특히 타타 삼판과 노리시코를 중심으로 한 성장 포트폴리오는 매출이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인도 사업 내 매출 비중도 36%까지 확대되었다. 원재료비 안정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EBITDA 마진은 전년 대비 0.9%p 개선되며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프리미엄 제품군의 고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FY27년 매출과 EBITDA는 각각 전년 대비 10.2%, 1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핵심 음료·식품 사업의 안정적인 판매량 성장과 M&A를 통해 확보한 성장 사업군의 30% 이상 고성장이 중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사는 필수소비재 업종 전반의 낮은 성장 환경 속에서도 프리미엄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확보해 왔다. 향후 3년간 연평균 EPS 성장률은 19.6%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견조한 이익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바룬 베버리지(VBL IN, 매수): 일시적 판매량 둔화, 매수 기회로 판단

동사의 2026년 2분기(CY2Q26) 매출과 EBITDA는 각각 845억 루피, 234억 루피를 기록했다. EBITDA는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인도 음료 판매량이 시장 기대를 밑돌며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 해외 사업은 Twizza 인수 효과와 아프리카 시장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매출과 판매량이 각각 40% 이상, 38% 증가하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인도 사업은 판매량 증가율이 전년 대비 약 14%에 그치며 시장 기대를 하회했다. 경영진은 4월 기상 여건 악화가 판매량 둔화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5~6월과 7월에는 다시 2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연간 실적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했다. 매출은 기대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EBITDA는 전년 대비 17.2%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실적 발표 이후 인도 음료 판매량 둔화 우려로 주가는 하락했지만, 7월 들어 판매량 증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조정은 중장기 관점의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인도 음료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압도적인 유통망 및 시장 지배력을 감안해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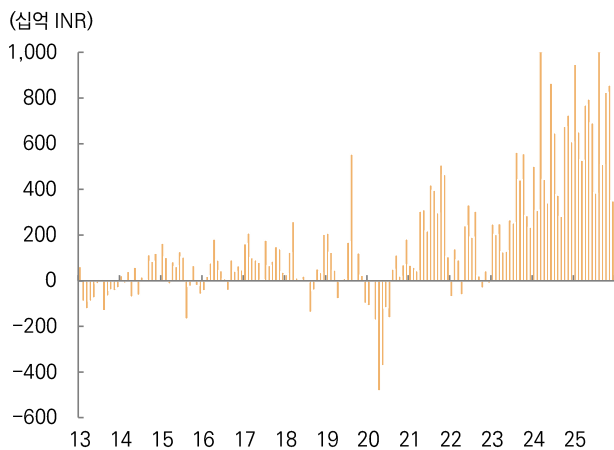
인도 주요 데이터

표 2. 인도 관련 주요 국내 ETF 수익률

ETF명	운용사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Tiger 인도 니프티50 (45387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4	-2.2	-7.0	-2.1	-12.2	-7.5	14.8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47973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5	1.4	-1.9	4.6	-2.3	5.4	-
Tiger 인도 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 (23635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3	-4.7	-14.4	-6.3	-25.6	-20.1	11.3
Kodex 인도 Nifty50 (453810 KS)	삼성자산운용	-1.0	-2.8	-6.4	-1.6	-11.8	-7.6	14.5
Kodex 인도타타그룹 (477730 KS)	삼성자산운용	1.9	-0.1	-4.3	-3.3	-9.6	-4.8	-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453820 KS)	삼성자산운용	0.6	-3.4	-12.6	-5.3	-24.7	-21.8	11.8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0000H0 KS)	삼성자산운용	-0.2	-2.6	-6.1	1.4	-0.7	2.9	-
ACE 인도시장 대표 BIG5그룹액티브 (487920 KS)	한국투자신탁	-0.2	-1.7	-5.1	-0.3	-4.3	0.0	-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 (487910 KS)	한국투자신탁	0.6	-1.1	-2.2	3.9	-1.0	-3.0	-
KIWOOM 인도Nifty50(합성) (200250 KS)	키움투자자산운용	-0.7	-2.3	-6.5	-2.1	-12.3	-9.2	14.2
RISE 인도디지털성장 (498610 KS)	KB자산운용	3.6	0.6	-0.7	2.9	-13.9	-14.4	-
에셋플러스 인도일등기업포커스20액티브 (0002C0 KS)	에셋플러스자산운용	-2.2	-4.8	-5.3	2.8	-1.6	-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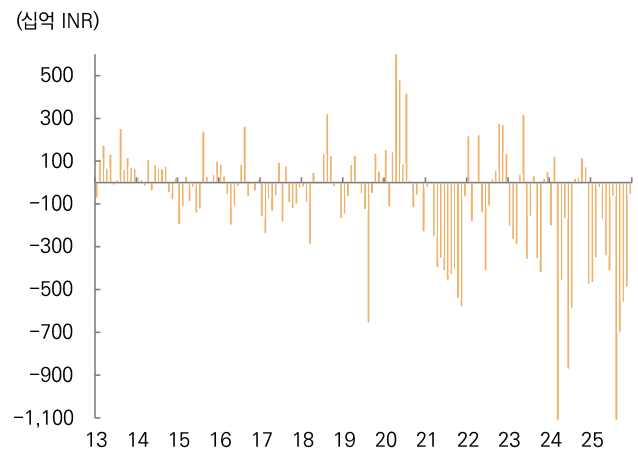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국내기관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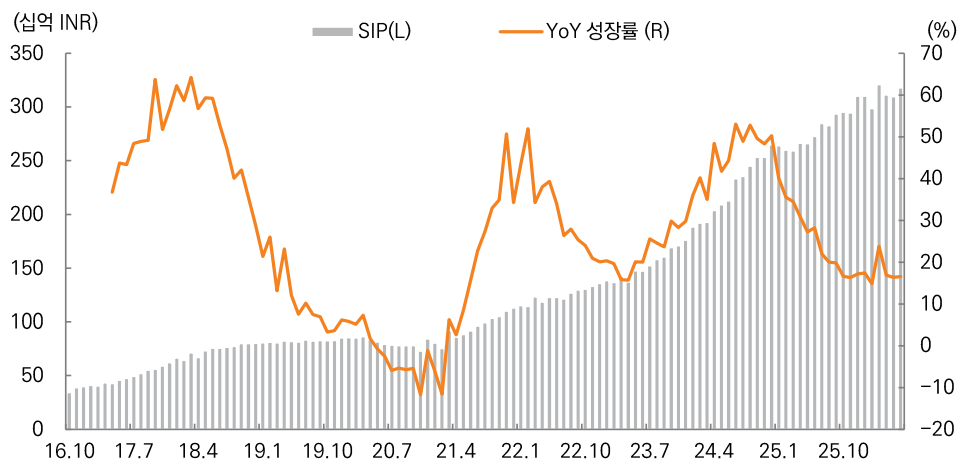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해외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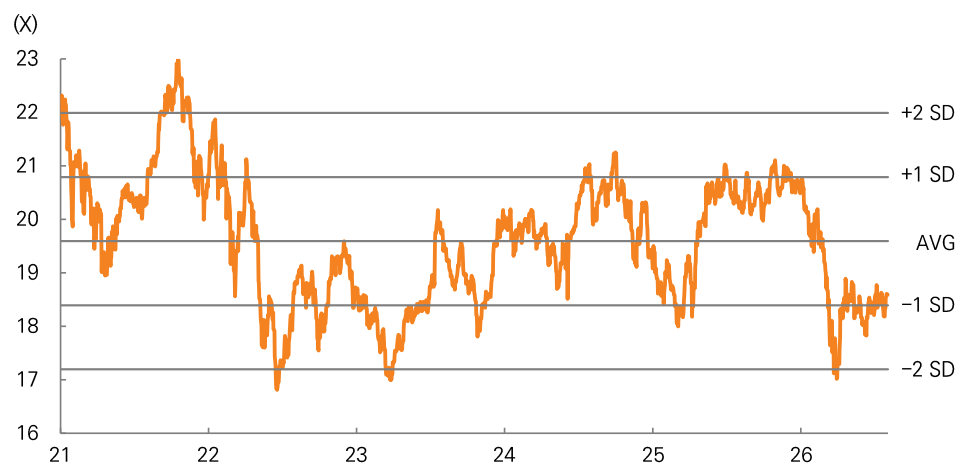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SIP 적립식 펀드 월 단위 유입액 추이



자료: AMF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Nifty 50 P/E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Nifty 50 주요 기업 수익률*

기업명	시가총액 (십억 INR)	자수 비중(%)	2주간 수익률 (%)	투자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Reliance Industries	17,698	8.9	-1.5	2.3	1.1	-8.2	-8.6	-5.3	2.6
Bharti Airtel	12,306	6.2	3.3	3.9	6.5	5.8	0.0	6.0	121.6
HDFC Bank	11,529	5.8	-8.7	0.7	-6.2	-1.4	-19.8	-24.4	-9.4
ICICI Bank	10,300	5.2	-0.6	0.2	4.4	14.6	4.2	-0.9	43.8
State Bank of India	9,484	4.8	-1.6	1.2	0.0	-2.1	-1.7	31.7	65.7
Tata Consultancy Services	8,559	4.3	4.3	4.9	16.4	-2.6	-25.3	-18.0	-30.9
Bajaj Finance	7,105	3.6	8.0	12.7	13.6	22.5	19.0	31.1	56.3
Larsen & Toubro	5,419	2.7	3.3	4.0	-4.9	-0.9	-1.5	10.9	46.9
Hindustan Unilever	4,937	2.5	-2.0	-2.0	-0.8	-5.7	-10.4	-16.2	-17.9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4,776	2.4	3.0	2.5	6.9	10.4	18.0	23.3	74.1
Infosys	4,585	2.3	3.1	8.6	13.0	-2.3	-30.3	-20.2	-16.6
Maruti Suzuki India	4,475	2.2	3.1	5.9	0.8	6.9	-3.7	15.7	44.9
Titan Company	4,328	2.2	5.1	4.2	10.7	11.5	20.2	47.5	62.3
Mahindra & Mahindra	4,226	2.1	6.9	7.5	10.7	10.9	-2.7	8.7	130.4
Adani Enterprises	4,074	2.0	-4.8	-0.6	-0.9	25.0	36.7	28.1	20.8
Adani Ports and Special Economic Zone	3,909	2.0	-7.7	-4.1	-6.3	2.8	11.3	26.5	118.1
Kotak Mahindra Bank	3,882	2.0	0.1	1.4	-0.5	2.0	-6.0	-1.9	5.1
Axis Bank	3,825	1.9	-7.5	0.2	-8.6	-3.0	-9.3	15.8	28.9
HCL Technologies	3,655	1.8	11.9	6.0	25.7	13.4	-18.2	-3.0	20.6
ITC	3,521	1.8	0.1	-0.9	-2.1	-8.3	-6.9	-29.2	-39.7
UltraTech Cement	3,508	1.8	1.5	0.5	5.8	4.8	-3.5	0.3	43.1
NTPC	3,367	1.7	1.6	0.0	-2.6	-13.0	-2.4	7.7	59.0
Bajaj Finserv	3,248	1.6	9.4	8.1	14.0	16.2	0.9	6.0	27.0
Bajaj Auto	3,220	1.6	10.3	3.5	18.6	16.9	21.8	45.3	133.6
JSW Steel	3,106	1.6	2.6	2.4	3.6	1.0	3.9	24.3	55.5
Oil & Natural Gas Corporation	3,051	1.5	-1.9	-2.5	3.2	-19.0	-3.4	8.0	37.0
Eternal	2,923	1.5	5.5	8.0	14.3	22.4	8.1	-0.8	259.6
Nestle India	2,911	1.5	5.8	4.6	7.4	4.0	16.6	34.0	33.9
Bharat Electronics	2,835	1.4	-5.3	-4.2	-5.8	-10.1	-11.3	3.5	196.7
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2,644	1.3	0.2	-1.4	-0.7	-10.7	1.5	0.8	42.5
Asian Paints	2,635	1.3	2.2	4.1	4.2	13.4	14.2	14.2	-18.7
Coal India	2,552	1.3	-3.2	-3.1	-5.7	-12.8	-1.0	20.6	80.7
Shriram Finance	2,463	1.2	1.1	4.1	0.4	12.3	5.2	72.4	176.4
Tata Steel	2,368	1.2	2.0	3.8	0.9	-8.4	0.3	26.5	54.0
SBI Life Insurance Company	2,302	1.2	2.9	1.3	6.6	3.5	-5.9	4.9	46.8
Hindalco Industries	2,190	1.1	3.2	3.4	1.9	-5.6	2.5	46.7	110.6
Eicher Motors	2,150	1.1	3.6	2.7	10.7	11.3	9.7	43.2	132.8
Grasim Industries	2,110	1.1	-0.3	0.4	0.0	11.0	10.4	14.3	68.3
InterGlobe Aviation	1,999	1.0	-1.5	3.7	-3.7	20.4	4.5	-10.5	99.4
Wipro	1,819	0.9	4.3	3.7	7.8	-7.4	-23.5	-21.5	-9.3

주: 자수 비중이 높은 순서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매매를 권유한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